<h1>나 혼자만 레벨업-40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i3c6a0c7386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40화</p>  
<p>-여부가 있겠습니까.</p>  
<p>"전화 옆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바로 연락하고."</p>  
<p>-알겠습니다, 과장님.</p>  
<p>안상민은 신신당부하며 전화를 끊었다.</p>  
<p>그러고 나니 문득 허기가 밀려왔다.</p>  
<p>꼬르륵.</p>  
<p>'신경을 너무 그쪽에 쏟고 있었더니...'</p>  
<p>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, 성진우를 기다린다고 아직 밥도 못 먹은 상태였다.</p>  
<p>언제 유진호 팀이 올지 모르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다. 이제 좀 여유가 생긴 안상민은 근처에 어디 밥 먹을 데가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다가 편의점으로 들어갔다.</p>  
<p>'밥값 아끼려는 건 아니지만...'</p>  
<p>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혼자 밥집에 들어가면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다.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고른 게 편의점 컵라면이었다.</p>  
<p>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렸다 나무젓가락을 막 뜯었을 때였다.</p>  
<p>뚜르르.</p>  
<p>"에이! 밥 먹는데 누구야, 귀찮게."</p>  
<p>액정을 보니 익숙한 이름이 찍혀 있었다.</p>  
<p>\_오른팔.</p>  
<p>'현기철 이 자식이...'</p>  
<p>안상민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다.</p>  
<p>"고새를 못 참고 전화질이냐."</p>  
<p>-과장님 그게 아니라요.</p>  
<p>"아니긴 뭐가 아니야. 별일 아닌데 전화 건 거면 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점심은 무조건 편의점 컵라면으로 동결한다."</p>  
<p>-그게 아니고요, 과장님! 지금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!</p>  
<p>면발을 막 입에 넣으려던 안상민의 손이 정지한 동영상 화면처럼 멈췄다.</p>  
<p>"뭐?"</p>  
<p>-지금 유진호, 성진우가 나와서 공격대 멤버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!</p>  
<p>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.</p>  
<p>안상민은 급하게 시간을 확인했다.</p>  
<p>"아직 30분밖에 안 지났잖아? 도중에 레이드 포기한 거 아냐?"</p>  
<p>-아닙니다. 게이트가 흔들리고 있어요.</p>  
<p>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!</p>  
<p>아무리 C급 던전 간에 난이도 차이가 있다고 해도 솔플 30분짜리 C급 던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.</p>  
<p>"다시 확인해 봐! 게이트 닫히고 있는 거 맞아?"</p>  
<p>-예, 맞습니다. 영상이라도 찍어서 보내 드릴까요?</p>  
<p>"...아니, 됐다."</p>  
<p>안상민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.</p>  
<p>A급 헌터가 보통 2시간 걸리는 C급 던전을 30분 만에 돌파해?</p>  
<p>B급 이상이 뭐냐.</p>  
<p>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최소한으로만 잡아도.</p>  
<p>"A급 이상..."</p>  
<p>상상도 못 했던 대박이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"형님. 오늘 바쁘신 일이라도 있으십니까?"</p>  
<p>"아니. 왜?"</p>  
<p>"이렇게 빨리 사냥하시는 건 처음 봐서요."</p>  
<p>유진호는 혀를 내둘렀다.</p>  
<p>진우가 강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정말 미친 듯이 강력했다.</p>  
<p>당연히 그럴 수밖에.</p>  
<p>진우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.</p>  
<p>'던전의 마수들이 늑대인간들이었으니까.'</p>  
<p>[칭호: 늑대 학살자]</p>  
<p>늑대를 잡는 데 능숙한 사냥꾼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. 짐승형 몬스터를 상대할 때 모든 능력치가 40% 증가합니다.</p>  
<p>'늑대 학살자' 버프는 당연히 늑대인간들을 상대할 때도 적용됐다.</p>  
<p>가뜩이나 레벨이 많이 오른 상태에 버프까지 받았으니 C급 마수 따위가 버틸 재간이 있나?</p>  
<p>"깨개개갱!"</p>  
<p>"깨갱!"</p>  
<p>"키이잉!"</p>  
<p>덕분에 유진호는 죽은 마수들의 사체에서 마정석을 캐내느라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.</p>  
<p>안에서 마신 힐링 포션만 다섯 병.</p>  
<p>포션 때문에 배가 불러서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.</p>  
<p>'그건 그렇고...'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아까부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다.</p>  
<p>'마력이 느껴지지 않는 걸로 보아 헌터는 아닌 것 같은데.'</p>  
<p>주변을 둘러봤지만 딱히 수상한 자는 없었다.</p>  
<p>찾겠다고 맘먹으면 못 찾을 것도 없지만 살기나 적의가 느껴지지 않아서 찾아내려면 시간이 한참 필요할 것 같았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고.</p>  
<p>아니나 다를까.</p>  
<p>시선은 금방 사라졌다.</p>  
<p>"형님, 왜 그러세요?"</p>  
<p>"...아냐. 출발하자."</p>  
<p>시간은 한정되어 있다.</p>  
<p>허비할 시간은 없었다.</p>  
<p>진우는 다시 한 번 주변을 슥 둘러보고는 이내 승합차 조수석에 올라탔다.</p>  
<p>두 번째 게이트가 있는 곳에서는 시선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.</p>  
<p>들어갈 때도, 나올 때도.</p>  
<p>'내가 너무 예민했었나?'</p>  
<p>별일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 그나마 다행이긴 했다.</p>  
<p>어느새 다가온 유진호가 꾸벅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"형님, 죄송합니다. 오늘 게이트는 이게 다네요. 다른 게이트들은 너무 멀어서요."</p>  
<p>"네가 죄송할 일도 아닌데 뭐."</p>  
<p>해가 떨어지려면 아직 한참 남았지만 두 사람의 활약 탓에 인근의 게이트가 씨가 마른 터라 오늘 일정은 여기서 끝이었다.</p>  
<p>"수고하셨습니다."</p>  
<p>"수고는 공대장님이 하셨지요."</p>  
<p>"내일 또 뵙겠습니다."</p>  
<p>"수고하셨어요."</p>  
<p>멤버들을 해산시킨 두 사람은 나란히 승합차 앞좌석에 탑승했다.</p>  
<p>"집으로 모시겠습니다, 형님."</p>  
<p>유진호는 어느새 충직한 운전기사가 됐다.</p>  
<p>운전기사를 잡은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다.</p>  
<p>진우는 딱한 시선으로 유진호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'길드 마스터 한번 해 보겠다고 부잣집 도련님이 팔자에도 없는 운전수 신세를...'</p>  
<p>해맑게 웃으며 액셀을 밟던 유진호가 진우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.</p>  
<p>"엇? 혹시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습니까, 형님?"</p>  
<p>"...아니다."</p>  
<p>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하던 진우는 문득 뭔가가 떠오른 듯 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.</p>  
<p>'지금이 4시 46분.'</p>  
<p>확실히 집으로 그냥 돌아가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.</p>  
<p>운 좋게도 마침 해야 할 일이 있긴 했다.</p>  
<p>'요 근처였지, 아마?'</p>  
<p>기억이 맞는다면 말이다.</p>  
<p>진우가 말했다.</p>  
<p>"진호야."</p>  
<p>"예, 형님."</p>  
<p>유진호는 능숙하게 핸들을 돌리며 대답했다.</p>  
<p>두 사람이 탄 차가 부드럽게 커브를 돌았다.</p>  
<p>"미래 백화점으로 가자."</p>  
<p>"미래 백화점요?"</p>  
<p>유진호가 의외라는 얼굴을 했다.</p>  
<p>"그래."</p>  
<p>"바로 요 앞이기는 한데... 오늘 사냥하실 때도 그렇고 진짜 무슨 일 있으십니까, 형님?"</p>  
<p>"...어째 갈수록 말이 부쩍 늘어간다?"</p>  
<p>그러자 유진호의 고개가 정면에 못박힌 듯 고정됐다.</p>  
<p>"빛과 같은 속도로 달려가겠습니다. 형님. 안전띠 꽉 붙들어 매세요."</p>  
<p>금세 태도를 바꾼 유진호는 브레이크 한번 안 밟고 번개처럼 차를 몰았다.</p>  
<p>멀지 않은 거리여서 금방 도착했다.</p>  
<p>끼익.</p>  
<p>두 사람이 탄 차가 목적지 앞에 멈춰 섰다.</p>  
<p>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미래 백화점의 위용은 대단했다.</p>  
<p>탁.</p>  
<p>진우가 내리자 유진호도 따라 내렸다.</p>  
<p>유진호는 문을 닫고서 우두커니 서있는 진우 옆으로 다가갔다.</p>  
<p>"형님. 우리 길드도 이런 빌딩을 사무실로 써야 하는데 말이죠."</p>  
<p>유진호가 백화점 건물을 올려다보며 반쯤 진담 섞인 농담을 건넸다.</p>  
<p>그런데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.</p>  
<p>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유진호가 황급히 옆을 돌아봤다.</p>  
<p>"어라?"</p>  
<p>이미 진우는 사라져 있었다.</p>  
<p>"형님?"</p>  
<p>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진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.</p>  
<p>"형니임?"</p>  
<p>\*\*\*</p>  
<p>[보스가 처치되었으므로 던전 내부가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됩니다.]</p>  
<p>'백화점 인던에서 또 2업.'</p>  
<p>집으로 돌아가는 길, 진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.</p>  
<p>오랜만에 랜덤 박스에서 나온 열쇠.</p>  
<p>미래 백화점에서만 쓸 수 있는 인던열쇠였다.</p>  
<p>언제 갈까 타이밍을 재다가 오늘 시간이 난 김에 클리어해 버렸다.</p>  
<p>-형니임?</p>  
<p>사라진 자신을 찾던 유진호의 얼빠진 얼굴은 지금 생각해도 웃겼다.</p>  
<p>그때 전화가 울렸다.</p>  
<p>뚜르르.</p>  
<p>전화를 받기 전 습관처럼 액정을 확인했지만 본 적 없는 번호였다.</p>  
<p>'누구지?'</p>  
<p>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어머니를 대신해 어린 동생을 돌보느라 바빴고, 졸업 후에는 곧바로 헌터 일을 시작해 진우의 인맥은 좁은 편이었다.</p>  
<p>'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일이 없는데...'</p>  
<p>고개를 갸웃하는 것도 잠시.</p>  
<p>일단은 받았다.</p>  
<p>"여보세요."</p>  
<p>-안녕하세요, 성진우 씨 맞으신가요?</p>  
<p>시원시원한 남자의 목소리.</p>  
<p>진우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다.</p>  
<p>뚝.</p>  
<p>'경험상 이런 전화의 99퍼센트는 홍보 전화나 대출 권유니까.'</p>  
<p>폰을 다시 주머니 속에 넣으려는 순간 또 전화가 걸려왔다.</p>  
<p>뚜르르.</p>  
<p>같은 번호였다.</p>  
<p>'어라? 홍보 전화가 아니었나?'</p>  
<p>실적을 쌓기 위해 마구잡이로 돌리는 홍보 전화는 끊었을 때 곧바로 다시 걸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.</p>  
<p>시간 낭비란 걸 거는 쪽도 아니까.</p>  
<p>'그럼 진짜 무슨 볼일이 있다는 이야긴데...'</p>  
<p>이번에는 제대로 전화를 받았다.</p>  
<p>"네, 성진우입니다."</p>  
<p>-아, 맞군요. 방금 전화가 끊기길래 잘못 건 줄 알았습니다, 하하.</p>  
<p>"..."</p>  
<p>목소리가 워낙 그쪽 분위기라 상품 홍보나 대출 권유인지 알고 끊었다고 사과를 해야 하나, 말아야 하나 2초정도 고민해 보다 그만뒀다.</p>  
<p>'어째 사과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무례한 거 같으니.'</p>  
<p>잠깐의 정적 후에 영업 사원이, 아니 영업 사원 같은 목소리를 지닌 남자가 뒤늦게 자신을 소개했다.</p>  
<p>-참, 소개가 늦었네요. 저는 백호 길드에서 일하는 안상민입니다.</p>  
<p>진우의 걸음이 멈췄다.</p>  
<p>'백호 길드에서 내게 전화를?'</p>  
<p>아무리 생각해 봐도 백호 길드에서 전화를 걸 이유가 없었다. 굳이 접점을 찾는다면 이중 던전 사고 때 협회를 도운 게 백호 길드라는 것 정돈데...</p>  
<p>'이제 와서 그냥 일을 물어보려는 건 아닐 테고.'</p>  
<p>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성미다.</p>  
<p>안상민이 말을 하기 전에 진우가 먼저 물었다.</p>  
<p>"백호 길드에서 제게 무슨 일로 전화를 거셨죠?"</p>  
<p>-전화로는 조금 곤란한데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?</p>  
<p>찾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자는데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.</p>  
<p>마침 모레 일정이 비어 있기도 했고.</p>  
<p>'진호 집에 무슨 행사가 있다던가?'</p>  
<p>일가족이 모두 참석해야 하는 큰 행사라 피치 못하게 레이드를 쉬어야겠다고 유진호가 양해를 구해 왔었다.</p>  
<p>'큰 행사라...'</p>  
<p>재벌 일가의 행사라고 하니 고급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리는 파티 장면이 떠오르는 건 순전히 드라마 탓일까?</p>  
<p>아무튼 약속을 잡기는 편했다.</p>  
<p>"목요일에 시간이 납니다."</p>  
<p>-그게... 지금 당장은 안 될까요?</p>  
<p>지금 당장?</p>  
<p>진우는 시간을 확인했다.</p>  
<p>휴대폰 액정에 떠 있는 시계는 오후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.</p>  
<p>"벌써 여덟 시가 다 돼 갑니다만."</p>  
<p>-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.</p>  
<p>"근처라면?"</p>  
<p>-가까운 카페에 있습니다.</p>  
<p>안상민은 카페 이름을 말했다.</p>  
<p>익숙한 카페였다.</p>  
<p>집 앞에 있어서 자주 근처를 지나치는 데다, 유진호를 만날 때 약속 장소로도 썼던 곳.</p>  
<p>진우의 눈빛이 예리해졌다.</p>  
<p>'내 주소를 알고 있군.'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